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30호



8조각은 너무 많아!

청하이 무상사/ 1995. 12. 17. 포모사 시후(원문 중국어)

비디오 No. 516

한 남자가 피자를 사러 갔습니다. 점원이 그에게 물었죠. “드시기 좋게 몇 조각으로 잘라 드릴까요?” 남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 점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6조각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8조각으로 해드릴까요?”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6조각이 좋겠군요. 8조각은 다 먹을 수 없는 걸요.”



아낄 돈이 없어요

청하이 무상사/ 1995. 12. 17. 포모사 시후(원문 중국어)



한 외판원이 한 주부에게 냉장고를 팔려고 설득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냉장고가 많은 돈을 절약해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형으로 전기도 별로 먹지 않아서 시장 보러 다니는 시간과 기름을 절약시켜 준다는 등 했지요. 그 부인은 다 듣고 난 다음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아주 많은 것을 절약했어요! 새로 뽑은 차 할부금을 내려고 절약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내려면 절약해야 해요. 또 대학 갈 애들 때문에 절약해야 하고,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라서 또 절약해야 합니다. 게다가 식기 세척기를 새로 장만하려면 또 해서 이젠 더 이상 아낄 돈도 없다고요!”

예상치 못한 날씨

청하이 무상사/ 1995. 12. 17. 포모사 시후(원문 중국어)

비디오 No. 516

얘기를 나누던 두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어제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좋은 비가 오든 시험 보다고 하셨어!” 그러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오늘은 눈이 오는데!”



앞표지 안 / 스승님의 농담

8조각은 너무 많아! / 아낄 돈이 없어요 / 예상치 못한 날씨

2 다채로운 이벤트

캐나다 / 페루 / 미국 / 포모사

4 스승님 말씀

자기 수용의 축복을 체험하라

5 / 22 영혼의 고양

새로 나온 MP3 CD / DVD / 비디오 테이프

6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음류의 기적

7 사이버 전망대

‘예술과 영성’ 인터넷 방송국 개국

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명상 / 진정한 사랑

12 지혜어록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13 신기한 감응

스승님이 주신 안경 / 차(車) 축복! / 놀라운 은총

15 수행과 생활

건강한 생활 선(禪)

17 / 23시

우아한 보병 / 사랑의 요정들

18 특집 기사

사랑으로 풍요로웠던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 행사

22 스승과 제자 사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24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최고의 기도

27 감로법어

28 이야기 세상

꼬마 마틴 이야기

29 수행의 길목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

30 수행일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원동력 / 어린 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32 사랑의 실현

영국 / 캐나다 / 미국 / 코스타리카 / 포모사

36 관음 웹사이트

37 전 세계 연락처

뒷표지 안 / 무상예술

뒷표지 / 스승님의 최근 사진



작은 미물도 사랑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세요. 중생을 살생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0호

출판일자 : 2002. 9. 20.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 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식

사랑과 진리를 나누다



[몬트리올] 2001년 12월 2일, 몬트리올 동수들은 센터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중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 전과 행사 동안 행사 진행자들과 자원봉사 동수들은 센터에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했다.

뜻 깊고 사랑으로 가득한 강연회가 끝난 후 참석자의 절반 가량이 바로 방편법을 신청했다. 그 중에는 떠나기가 아쉬워 오후 늦게까지 동수들과 함께 수행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우리 단체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또 다른 수확은 몬트리올의 동수들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스승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페루 소식

신성한 사랑이 충만했던 선 행사



[리마] 리마 동수들은 오랫동안 지역 선 행사 개최를 희망해왔는데, 2001년 12월 8일과 9일 선이(禪二) 행사가 열리면서 마침내 꿈이 실현되었다. 장소를 제공한 사형의 농장은 아름다운 해바라기 밭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공기 또한 상쾌하고 활력을 북돋아 주었다.

선 기간 동안, 우리는 단체명상을 하고 스승님의 오디오 강연 테이프를 들었다.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의 심오한 뜻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사저들은 자주 중간중간 다시 틀어 달라고 부탁했다. 참가자들은 또 이틀간의 선 행사를 치르면서 스승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발간하신 뉴스잡지를 읽기도 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무소부재하고 한없는, 신성한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 성찬(聖讚)이 천상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들 더없는 희열을 느끼며 선 행사는 막을 내렸고 모두들 다음 선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했다.

미국 텍사스 소식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T)에서의 비디오 강연회



[오스틴] 토요일인 2001년 12월 1일, 오스틴 센터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비디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학생단체 '관음법문, 빛과 소리의 명상'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학교측의 승인을 얻어 우리는 캠퍼스 내의 여러 건물에 강연회를 알리는 글을 수백 장 붙이고 텍사스 대학 출판물에 광고를 냈으며, 수천 장의 전단지도 배포했다. 강연회 당일에는 흥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달라스와 휴스턴 센터에서 많은 동수들이 찾아와 강연장은 평화로운 분위기로 고양되었다. 청중들은 대부분 오스틴 캠퍼스 학생들이었는데,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같이 매우 진지한 모습들이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 중 3분의 1 가량이 방편법을 신청해 배웠으며, 방편법 전수가 끝난 후에도 많은 질문을 던지며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관해 입문자들과 열성적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번 세미나는 오스틴 캠퍼스에서

열린 최초의 비디오 강연회였다. 동수들은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많

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

게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포모사 소식

2001 시후 문화축제



시후 향장 양 시우시아 (오른쪽에서 두 번째)씨가 2001 시후 문화 축제에 참석한 방문객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공헌을 칭찬하고 있다

[시후] 1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시후센터는 시후 향공소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2001 시후 문화축제'에 참가했다. 우리가 참가한 부문은 이번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아름다운 종교 문화유물전' 이었는데, 마침 이 전시지역은 유명한 종교 명소인 덕룡사 쪽이었다. 개막식 리본 커팅식에는 교육부 직원들이 초대되었으며, 이후 3일 동안 다양한 내

용의 행사들이 계속돼 시후향은 떠들썩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이루었다. 리본 커팅식은 주관단체가 이번 행사를 지역 사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향공소의 문교 복지과 홍 소장은, 시후에는 종교와 문화, 아름다운 환경, 세 가지 보배들이 있다고 말했다. 시후의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점이며, 이번 행사는 지역의 종교 및 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개막일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향장이 귀빈들을 데리고 스승님의 출판물 전시지역으로 안내했을 때, 우리측 안내 요원이 자리에 없자 (잠시 회장을 비워 달라는 안내가 있었다.) 향장은 방문객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헌에 관해 칭찬하는 등 가이드로 활동했다. 그녀는 나중에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은 사람들이 종파와 상관없이 모두 협력하고 좋은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이 '칭하이 무상사 국



제협회'에 관해 더욱 알게 되길 희망합니다"라고 했다. 이외에 시후 초등학교의 교사인 행사 주최자는 작업팀의 한 동수로부터 뉴스잡지 126호 '스승의 날 특별기사' 중 교육에 관한 스승님의 말씀 발췌문을 소개받고, 즉시 이 잡지를 수십 권 부탁하며 동료들에게 나눠 줄 계획을 세웠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 부스를 방문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의 비디오 한 편을 다 볼 때까지 오랫동안 부스 앞에서 있기도 했다. 신은 진실로 당신 자녀들의 영적인 갈망들을 들어주신다. 우리는 민심이 소박하고 순수하며 환경이 아름다운 사후향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한 수행의 길을 걷게 되기를 희망했다.



자기 수용의 축복을 체험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7. 10. 23. 태국 방콕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 No. 598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자신을 모질게 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나은지 어떻게 압니까? 또 내가 여러분보다 나은지요? 사실 나는 여기 어느 누구보다 더 낫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 자신을 받아들이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신이 나를 좋지 않게 여겼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든 난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모두를 대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좋게 느껴지는 것을 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바꾸십시오. 하지만 바꾸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마십시오. 또 바꾸는 편이 좋다는 걸 알고 있을지라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꾸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즐기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다른 것을 즐기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정적인 부분들은 되도록 무시하십시오.

어쨌든 신이 다양한 색깔과 개성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불완전한 점을 받아들이세요. 완전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이힐을 신는 걸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난 신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것이 싫었지만, 나중엔 이렇게 생각했죠. “안 될 게 뭐야!”라고 말입니다. 상관 없어요! 편안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입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과 비슷한 차림을 하는데 그것도 매우 편합니다.

오늘 난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니,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해선 안 됩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건 신에게 가혹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냈다고 신을 비난합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도록 환경을 조성


했다고 신을 비난하고, 그 습관을 고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또 그가 만든 우리의 불완전한 면에 대해서도 탓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여러분에게 만족해 한다면,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자신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괜찮다는 것을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시간 내내 말하고 있지요. 강연, 세미나, 선 행사, 질의 응답 등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괜찮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떼어 놓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빠진 빈 자리가 생기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벽돌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구멍난 것도,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벽돌들이 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빼다

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되겠지요. 모래 한 알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듯이, 여러분은 더욱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으니까요. 단지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됩니다. 모두가 압니다. 전 우주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자신의 ‘단점’ 때문에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겁

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괜찮으니,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은 완전하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만이 첫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돌을 던질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0/mt.htm> (포모사)
<http://Godsdirectcontact.org/eng/news/130/mt.htm> (미국)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CD

<중국어>

MP3-5(하) 1989. 2. 13-18 포모사 시후센터 선철

10. 수행은 분초를 다투는 경쟁이다
11. 부처를 따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
12. 기맥(氣脈)의 관점에서 본 관음법문
13. 분별심은 최대의 장애
14. 오해를 딛고 감사의 마음으로- 한 제자의 솔직한 고백
15. 한 용감한 사저의 신기한 장력(掌力)
16. 입문 후 육식의 결과

<중국어>

MP3-6 (상) 1989. 7. 29-8. 6. 포모사 시후센터 선철

1. 종성으로 선철을 시작하다
2. 스승의 힘으로 본 세상
3. 동수들의 체험 발표
4. 스승님의 세심한 배려
5. 동수들의 각국 노래, 스승님의 불찬
6. 나비 수집가 이야기
7. 신심은 모든 것을 이룬다
8. 부부관계와 수행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으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음류의 기적

관음사자

2000년 크리스마스 전, 나는 터키를 지나게 되었는데 터키 동수와의 연락이 닿지 않은데다 예비 입문자들도 갑자기 일이 생겨 크리스마스에 입문식을 거행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웃나라 동수들이 자신들의 크리스마스 선 행사에 나를 초대했지만, 그것 역시 비자 문제로 갈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터키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외로이 보내게 되었다. 완전히 낯선 터키에서 나는 이스탄불의 유명한 블루 모스크 뒤쪽에 위치한 작고 값싼 임시 숙소를 찾아냈다.

크리스마스 날, 문득 본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왔는지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어떤 성탄 인사 같은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 전날에도 확인했었지만, 낯선 나라의 외로운 여행자였으니 ‘고국’에 연락할 유일한 수단은 인터넷뿐이었다.

휴일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평소 들렀던 근처의 인터넷 카페 몇 군데도 문을 닫아서 나는 꽤 먼 거리를 걸어 마침내 아직 영업 중인 카페를 찾아냈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카페는 막 문을 연 참이었다. 아마 내가 첫 손님이었을 것이다. 카페는 매우 조용했고 젊은 주인은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창가에 자리를 잡자, 젊은 주인은 친절하게도 다가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었다. 처음엔 몰랐으나 인터넷에 접속하려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창문 옆에서 몇 초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게 물었다. “묘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가 소리를 묘사하자, 이번에는 내가 놀랄 차례였다. 그것은 내


귓가에 들리고 있던 음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나는 너무 놀랍고 흥분되어 그에게 물었다. “전에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고 이에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음류에 대한 신기한 점들을 약간 언급하자, 이번엔 그가 몇 년 전에 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꿈에서 한 동양 여성이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러 주었다고 한다. 나는 즉시 그에게 우리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그러자 반응이 빠른 요즘 젊은이답게 그는 즉시 자신의 즐겨찾기에 ‘Godsdirectcontact.org’를 추가했다. 스승님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매우 친숙하게 느껴진 것이 분명했다! 그가 달콤한 추억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기회를 틈타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어 우리 뉴스잡지를 구독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그는 남아공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역시 바빠졌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메일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조급해 했던 사실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 스승님의 감로법어 중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다. “때로 우리가 신과 매우 가까워질 때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 갑자기 체험을 얻을 것입니다.” 스승님은 이 낯선 나라에서 한 인터넷 카페 주인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다. 낭만적인 스승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매우 간접적으로 알려 주신 것이다.

며칠 후, 카페에 지나면서 견본책자를 주려고 들렀지만 문이 닫힌 데다 간판도 내려져 있었다. 이웃의 카페트 가게 주인이 “문 닫았어요!” 하고 소리쳤다. 벌써 남아공으로 떠난 것일까? 비자를 얻는데 실패한

것을 비롯해 갑자기 인터넷을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블루 모스크 부근에 머물기로 했던 것 등 지난 며칠 간의 일들을 종합해 보니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견본책을 손에 든 채 나는 갑자기 마음의 의문이 풀려 기분이 좋아졌다. 지혜로운 스승님이 인터넷 홍법 통로를 개설하셨기에 관음법문은 흠 잡을 데 없이 더욱 완전해졌다. 



인터넷의 인기 상승에 힘입어 하이넷 (Hinet) 하이채널(HiChannel) 137에 ‘예술과 영성’ 인터넷 방송국이 개설되어 컴퓨터를 통해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채널에는 이미 지난 1998년 12월 미국 LA 쉬라인 오디오리움에서 열린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콘서트 등 정선된 예술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 친구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선사할 것이다.

이 웹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ADSL이나 케이블 모뎀 등을 통한 광역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이 사이트는 번체자로 방영되므로, 중국어 서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비중국어권 방문자의 경우 같은 관음 웹사이트의 영문 페이지를 방문하면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아무 문제없이 시청할 수 있다.

‘예술과 영성’ 인터넷 TV 채널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137.hichannel.com.tw>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진정한 명상

청하이 무상사/ 1988. 8. 12-18. 포모사 이란 선철 (원문 중국어)

MP3 - 2

여러분 모두가 명상 중 보는 것에 집착해 그것만을 체험이라 여기고, 평소 명상하지 않을 때 보는 비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인데 말입니다. “행주좌와(行住坐臥)가 선(禪)” 이니까요. 명상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자신을 강제로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에고로 명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명상은 정말 자연스러워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처럼 그렇게 이완된 마음으로 명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장작을 패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깨달은 스승의 한마디에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곤 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몇 시간씩 골머리를 앓으며 앉아 있는데도 체험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에고, 두뇌로 명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명상이 아니라 연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행주좌와 모든 것이 명상이어야 진정한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자는 동안 에나 나에게 완전히 집중해 바라볼 때 좋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완전히 집중했기 때문이지요. 나를 보거나 내 말을 듣게 되면, 기쁜 나머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계속 집중하는데, 그것이 명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간을 찡그리고 ‘나는 명상하고 싶어. 어째서 체험이 없는거지? 왜 여태 체험이 없는 거

야? 언제 오려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닥달하고 깨달음의 체험을 닥달하는 것입니다. (대중 웃음)

하지만 부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고 감이 자유롭습니다. 여래(如來)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래처럼 행하고 여래처럼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도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應無所住而生其心)”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승을 볼 때, 일심불란하게 볼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도 다 생기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강연하는 곳이 밝게 빛나는 세계로 변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집중하면 그 모든 곳이 일시에 극락세계가 되며, 마(魔) 또한 부처로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단체 명상에 참여한 후 체험이 나빠졌다고 내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에고가 발현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동수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 주길 기대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머리 속에 아주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러면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것들을 생각합니다. 오불을 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마치 나를 어서 보내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대중 웃음) 나를 보면서도 오불 외우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나를 어서 쫓아 보내고 싶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볼 때는 마치 오랫동안 부모를 보지 못했던 아이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보아야만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체험이라 할 수 있지요.

두 눈을 꼭 감고 미간을 찡그리며 앉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에 불과한 것으로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끔은 신실할 때 체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집중할 수 없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맴니다. “괜찮아! 내가 신실하든 안 하든 지금으로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신이시여,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먹고 싶지 않아도 먹는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의무인 양 명상합니다. 습관을 기르듯이 아침에 일어나 별일이 없으면 우선 신을 생각하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신을 생각합니다. 매일 너무나 바빠서 신실하게 신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 신을 생각하고 저녁에 귀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신을 완전하게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며,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깨달은 스승의 강연을 듣는 것은 최대의 축복이며 공덕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스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의 자장에 의해 고양되거나 그 스승의 빛에 의해 우리의 나쁜 업장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나를 보러 와도 두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연에 왔을 때만큼 큰 가피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세 시간 동안 계속 깨달은 스승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찰나간 보는 것도 대단한데 하물며 두세 시간 동안 보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어떤 세계의 중생들은 여지껏 한번도 깨달은 스승을 보거나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접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살아 있는 스승을 두세 시간 동안 볼 기회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입문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에서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할 때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명상 중에 아무런 체험도 없으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에고로써 명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명상이 아니기에 체험도 없는 거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공덕이 있으니까요. 신실하게 명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가 좋고 나쁘고 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명상할 때 왜 내면의 체험이 없는지 말해 주겠습니다. 그 순간 집착을 완전히 벗어 버리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집중하고 있다고 여길 뿐입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왜 아직도 화신 스승님이 나타나지 않지?’ 하고 생각합니다. 신실함과 갈망은 집착과 다릅니다. 그러나 갓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를 구별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저 매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일부터 명상을 하며 스승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공덕이 되는 셈입니다. 명상이 좋고 나쁘고, 혹은 잡념이 있었든 없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시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위로 올라갈 핏계가 될 것입니다. (대중 박수)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옷가게에서 고용되어 일한다면 때로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서 줄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인은 그 날 임금을 지불합니다. 또 하루 종일 바쁜 날 역시 임금은 똑같이 계산합니다. 가게에 일하러 오기만 하면 그에 대한 월급을 받는 것이지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과 관계 없이 여러분은 명상을 해야 합니다. 매일 명상한 시간만큼 기록되어 언젠가 나는 여러분에게 그에 대해 ‘값’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대중 박수)

진정한 사랑

청하이 무상사/ 1988. 8. 12-18. 포모사 이란 선칠 (원문 중국어)

MP3 - 2

여러분은 내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화는 사람들의 분별심에서 나온 말일 뿐, 나의 ‘화’는 ‘화’가 아니며, 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분별심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이는 나쁘고, 또 어떤 이는 부드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본래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났다면, 내가 여러분을 꾸짖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거나 불안하게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싸울 때 그들이 화를 내면,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종일 불편하지 않습니까? (대중: “예.”) 내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그와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체험을 하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내가 ‘화’를 낸 후 여러분 중의 대다수는 아주 좋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 ‘화’ 법문도 팔만 사천 법문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대중 웃음)

그러니 내가 화를 내는 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것 역시 나의 본분이며, 나는 필요할 때 여러분을 끌어내기 위해 그것을 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내 ‘사랑의 마음’에만 의지해 집착하고, 명상할 때는 안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게 되고 수행도 게을리 할 것입니다. 그런 게 무슨 수행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야단을 치면, 모두들 바로 일심분란해지고 내면으로 참회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때 여러분의 마음도 안정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야단친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화내는 것 역시 일종의 법문이니깐요.

때로는 나도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시방 세계 불보살과 내면의 스승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행이 좋지 않다면, 제게 그 모든 업장을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혼나거나 욕을 듣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나 이 소원은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이 계속 내게 ‘화’ 법문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 본심은 여러분이 어떤 꾸중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꾸지람도 듣지 않고도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며 내면의 체험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기대이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나는 매일 이것만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불보살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들의 업장을 모두 제게 주십시오. 그들의 짐이 가벼워지고 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어떠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런 기도는 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업장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흥미롭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만이 있는 천국에서는 수행의 진보가 그리 빠르지 않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대강대강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아무런 재미도 없이 일상적이 되어 즐겁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라계나 사바세계에서 꾸짖음을 받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우 빨리 진보하지요. 천국에는 꾸짖거나 때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나 희노애락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물질 세계만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 여러분은 다른 세계나 천국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강연하는 곳에서 극락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극락세계는 우리 내면의 느낌, 내면의 체험입니다. 달리 더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경지는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아무도 꾸짖거나 속박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잘 수행할 수 없으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사바세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나면 여러분은 모두 좋은 체험을 합니다. 나 혼자만 지칠 뿐이죠. 여러분을 야단칠 때면, 나 역시 여러분과 같은 사바세계로 떨어져야만 여러분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어야 내가 와서 한사람씩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찰라마다 사바세계가 있으며, 극락세계, 천국이 존재합니다. 우리 내면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당시의 세계 역시 바뀝니다. 여러분이 빛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정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는 등급이 떨어져 사바세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정도로 갈 때는 꾸지람이 필요 없지만 이 극락세계의 경지를 영원히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거나 지옥에 가서 여러분 대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겨우 그런 일의 반이나 2/3만 할 수 있을 뿐,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꾸짖기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꾸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혼나고 맞아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수행이 좋아진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소망은 언제나 그것뿐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울 때면 더 많은 고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혼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업장을 벗고 제자들이 편안해져 수행이 좋아진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내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칠(禪七) 동안 진보한다면 나의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어도 개의치 않으며, 그 고통이 몇 배로 늘어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여러분을 제멋대로 하도록 두거나 너무 느슨하게 대하면 여러분은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모두들 ‘엄한 스승 밑에서 큰 제자가 나온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진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하게 대합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버릇을 망쳐 다시 윤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여러분의 응석을 받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외부에서 칭찬에 중독되어 있으며, 달콤한 말에 속고 인간적 감정에 얽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나 인간적인 애정으로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훈련시켜 여러분의 어두운 업장을 씻어내 책임감 있고 우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원망만 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고만을 생각한 나머지 그들 내면의 전지전능한 힘을 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성장했을 때는 필요한 것도 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달콤한 말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걸보기에 우호적으로 보이는 달콤한 말에만 의지한다면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꾸짖음을 참아낼 수 없다면 우리에게 아직 장애가 있으며, 여전히 달콤한 말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끔 선칠에 참여하는 건 정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센터마다 조용한 장소가 있어서 동수들이 함께 단체명상을 하고 매주 선일이나 선이를 열어 하루종일 명상하고 내 비디오 테이프를 보거나 오

디오 테이프를 듣는다면, 반드시 진보할 것이며 몇 달 후에는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명상의 규칙을 잘 지키고 매주 센터에서 선일이나 선이를 개최하는 것 또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면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많이 하고 나면 자신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며, 그러면 매우 기쁘고 큰 힘이 생기며 수행이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대강대강 게으르게 수행한다면 아무 소

용도 없고, 언젠가는 스스로를 고양시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퇴심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진급에 실패하면 ‘공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1년 간 얻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반면 다른 동급생들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게 되고, 공부한 성과가 있으니 자신감을 느끼고 행복해 할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게을리 하면 이 게으른 학생처럼 졸업도 못 하고 수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혜어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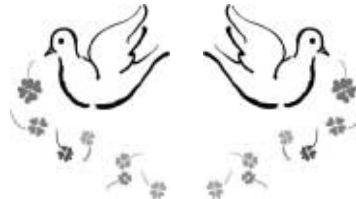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청하이 무상사/ 1993. 1. 3. 포모사 까오슝 국제공항 (원문 중국어)

어떤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침 선사는 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행이란 이 나무를 여기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 심는 것이다. 그리고선 날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무는 차츰차츰 성장하겠지. 수행도 이와 같다.”

우리는 평소 주의력을 바깥에 두거나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어 스스로를 고통과 번뇌 속에 빠뜨립니다. 깨달은 스승은 우리의 주의력을 보다 유용한 곳에 두도록 가르치며, 우리 영혼을 도와 내면의 힘을 계발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 마침내 우리가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무의미하고 덧없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원래 지혜이며 사랑의 힘으로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엔 해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익혀왔던 것들을 버리고 하고 싶어했던 것을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배워 온 이 무의미하고 좋지 않은 재료들은 우리 두뇌를 채워 우리를 옅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마땅히 어떠해야 하고 깨달은 성인은 이래야 하며 깨달은 스승은 저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면 해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관념들을 없앤다면, 이미 절반은 해탈한 겁니다. 그런 후 성불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스승님이 주신 안경

렐리 사저/ 스웨덴

우리 일가족을 구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우리 삶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다. 나 또한 명상을 하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최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기적이라고 할 만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 평소 사물을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외출할 때마다 주머니 안에 안경을 넣어 다녔다. 깜박 잊기라도 하는 날에는 사물이 헛갈려 일을 처리하기 힘들었다.

어느날, 나는 볼일이 있어 나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갑자기 안경을

잊고 온 게 생각났다. 순간 몹시 걱정이 된 나는 평소 습관대로 주머니 속을 뒤졌는데 놀랍게도 안경이 만져졌다. 꺼내 보니 내 안경이 아니었다. 이중초점 안경으로 아주 새 것이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모두들 고개를 흔들며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안경을 써 보니, 안경의 크기나 도수도 내게 꼭 맞았다. 이 안경으로는 책도 가깝게 읽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안경이 스승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제자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최근 내 안경이 독서용 돋보기라서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볼 수 있는 이중초점 안경을 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안경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었다. 자비로운 스승님께서서는 나의 심정과 어려움을 아시고 때맞추어 해결을 해 주신 것이다. 스승님, 당신의 사례 깊은 선물에 감사합니다!



최근 나는 ‘차 축복’을 체험했다. 오빠가 암으로 판명된 후, 죽을 때까지 5개월 동안 나는 오빠와 함께 지냈다. 그후 나는 내 육체적 상태나 수행적인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퇴보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친구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재점검해 보았지만, 고의로 계율을 어긴 일은 없었다. 오히려 예전보다 명상시간이 늘어났고 스승님에 대한 신심도 강해진 듯 했으나 다만 입문했을 때와 같은 그런 좋은 체험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육신 스승님을 보지 못한 탓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2001년 8월 7일 밤, 명



진 사저/ 중국

상을 하면서 나는 스승님께 화신을 나투어서라도 스승님을 직접 보고 싶은 열망을 들어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평소 스승님을 직접 뵈는 동수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몇 차례나 큰 소리로 스승님을 부르며 울곤 했었다. 그날 밤에도 스승님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 ‘스승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생각했다. 그

러나 명상 중에 내가 본 것은 화신 스승님이 아니라 어떤 차가 사람을 치는 광경이었는데, 피도 보였다. 나는 매우 놀라 혹시 아들에게 차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닐까 걱정되어 그 즉시 스승님의 명호를 계속 외며 보호를 청했다.

다음날 정오 무렵,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한 사저 집을 찾아가던 중 2톤 쓰레기차에 치였다. 차의 오른쪽 바퀴가 오른쪽 골반과 하복부 위로 지나가는 느낌이 역력했다. 당시에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지만 입고 있던 하얀 바지에는 트럭의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차에 치이는 순간 처음 머리를 스쳤던 것은 ‘어떻게 입문했는데도 트럭에 치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스승님이 모든 것을 안배하셨을 것이고, 또 스승님의 안배는 가장 좋은 것일 테니까!’ 스승님에 대한 신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바로 서려고 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선 일어설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트럭 운전사가 부축하자 일어날 수 있었다!


일어서는 순간 내 주위를 둘러싼 눈부시게 빛나는 흰빛을 보았는데 그 빛으로 인해 옆 사람과 차, 길이 사라져 버렸다. 눈이 아찔할 정도로 강렬한 흰빛이 나의 양 눈에서 퍼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부딪친 것도 아닌데 어째서 빛이 보이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있는 힘껏 눈을 뜨자 주변의 하얀 빛이 멀리 있는 하늘 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몰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태양은 약간 색깔이 있는 것처럼도 보였으며 그 흰빛만큼은 밝지 않았다.)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 밝은 빛은 스승님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나는 태양 한 개의 경지와 태양 천 개의 경지를 체험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을 때 화면에 사방에서 뻗어 나온 빛이 한 점에 수렴되어 흐르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사고를 당했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비전이었다. 다만 내가 보았던 빛이 더 밝고 장엄했으며 그 빛이 나를 감싸던 느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지만 굉장히 보호받는 느낌이었다.

스승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게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 이 교통사고는 나의 정업을 없애고 스승님을 보고 싶은 열망을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수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

사고가 난 후, 나는 즉시 트럭 운전사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또한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 이어서 바로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의사도 매우 놀라워하며 몇 가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바로 찾아오라고 했다. 다음으로 나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내게 배상하라고 그 트럭운전사에게 말했지만, 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스승님을 보고 다시 한번 스승님의 사랑의 바다에 흠뻑 빠졌으며, 수행상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그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다!’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차 사고’였을 일이 내게는 정말 ‘차 축복’이었던 것이다! 내 마음은 한없는 기쁨과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번 일로 인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승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스승님은 우리를 위해 최상의 안배를 해 주신다는 것이다. 

9.11 사건 이후 미국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지구의 평화와 긍정적인 힘을 고양시키기 위해 정기 단체명상 횟수를 늘렸다. 매주 일요일의 단체명상 외에도 수요일에도 단체명상을 하기 위해 사형사자들이 앞 다투어 자신들의 집을 제공했다. 또 우리는 토요일에도 지역의 한 호텔 방을 빌려 단체명상을 했다.



12월 1일 아침, 나는 다른 동수들이 도착하기 전에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 전날 밤 문에 ‘명상 중’이란 팻말을 봤

지만 조용히 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어서 무슨 명상인지 프론트에 물어보았다고 했다. 안내인은 한 수행단체가 정기적으로 명상하러 온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가 우리 단체의 명상수행법에 관해 묻자, 나는 스승님과 그 가르침을 소개해 주었다. 마침 내 손에 액자에 끼워진 스승님 사진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주었다. 그는 매

우 관심을 보이며 더 알고 싶어했고 그날 아침 우리와 함께 명상하고 싶어했다. 내가 채식을 하고, 입문을 해서 입문증이 있어야 단체명상에 참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자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했다. 그는 1년 간 채식을 해 왔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확실히 수행자였다. 그래서 그에게 방편법에 대해 얘기해 주자 그것에도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에게 정말 신실하게 배우고 싶다면 오후 1시에 다시 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곧 인도로 돌아가야 해서 1시 30분까지 공항에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신실함을 알게 된 나는 마침 다른 입문자들이 단체 명상에 조금 늦기도 해서 그 자리에서 방편법을 가르쳐 주었다.

방편법을 배우고 난 뒤 그는 정말 감동적이고 인상 깊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인도에 있는 그의 영적 친구가 얼마 전에 말하기를 인생이 그에게 있어 마지막 생이 될 것이며, 11월에 미국을 방문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뒤바꿀 영적인 메시지를 전수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당시 미국에 가 본 적도 없었고, 방문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차 애리조나 피닉스

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닉스에 3일간 머무는 동안 그는 줄곧 친구의 예언에 대해 생각을 해 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날 아침의 인연으로 그는 깊은 감동을 받고 너무나 고마워했다.

그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그에게 스승님의 책들과 뉴스잡지를 주었다. 우리 두 사람은 이 날 일어난 일로 매우 행복해했으며, 그는 하루 속히 스승님을 뵙고 싶어했다. 사랑과 한없는 축복, 그리고 신묘한 방법으로 안배를 하시어 갈망하는 영혼을 고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선(禪)

구술 / 포모사 타이베이 황 메이러 사저
기록 /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장 위지예

황 사저는 1988년 입문한 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수행이 진보하고 매사가 순조롭고, 가족 또한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왔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황 사저는 쉽게 피로해지고 몇 차례씩 가벼운 불면증을 겪었다. 무심코 넘기다 갱년기가 되고 나서는 결국 습관성 불면증과 허리와 등이 쑤시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녀는 그제야 서둘러 외과의사인 오빠를 찾아갔다.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몇몇 서양의사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들에게 검사를 받아봐도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검사할 때마다 의사들이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어릴 적부터 약 먹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황 사저는 한 의사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오빠의 도움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

녀의 목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졌고 요추 역시 약간 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예전에 빗길에서 넘어진 일로 골반 뼈가 휘어져 있었다. 넘어질 당시에는 젊고 건강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 50세가 되어가자 그때의 증상이 도지면서 때로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되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명상에도 지장이 생기자 황 사저는 매우 걱정되었다. '명상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수행자라 할 수 있겠는가?'

황 사저는 선 채로 명상을 해보았지만 다리가 약해서 오랫동안 서있을 수 없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1990년 4월 평풍 산티먼 선사 동안 스승님

이 동수들에게 시범 보이셨던 명상 전후에 할 수 있는 마사지법과 근육완화 조치법을 생각해 내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명상 때마다 명상 전후로 간단한 마사지와 스승님이 시범을 보이신 동작을 몇 분간 운동했다. 그러자 증세가 점차 회복되었고, 그녀는 스승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다. 스승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간혹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기곤 한다.

목과, 요추, 골반 부위의 상태를 좀더 호전시키기 위해 황 사저는

명상자세를 조정하고 명상 전후로 동작들을 취하는 것 이외에도 전문가 조언을 받아 몇몇 건강체조를 꾸준히 연습하기 시작했다. 또 이 건강체조를 대중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흔쾌히 알려 주었다. 운동방법은 아래의 각 그림 별로 왼쪽에서 오른쪽 동작으로, 위에서 아래동작으로 취하면 되고, 동수들은 각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첫번째와 두 번째의 등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거나 아예 이 두 과정을 생략하고 세 번째 근육 스트레칭 운동을 해도 된다. (그림 참조)

황 사저는 스승님이 가르쳐 주

신 운동에다 치료체조를 보완 실시해 고통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었고 명상하기도 훨씬 수월해졌다. 그녀가 특히 힘주어 하는 말이 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해탈법문을 전수 받았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런 일인가! 그러니 열심히 스스로를 잘 돌봐야만 훌륭한 도구가 되어 스승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은근육을 풀어주고, 명상과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신 체조를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ght_sound/exercise/exercise.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meditation/exercise/>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ight_sound/exercise/exercise.htm (포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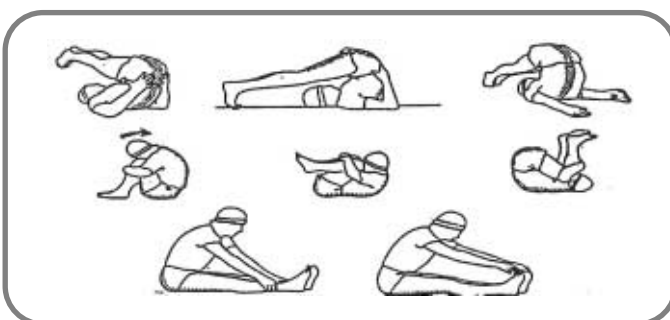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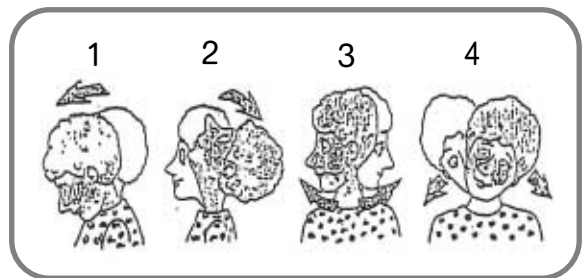
경추근육 이완 운동

1. 앞으로 숙이기 : 목을 천천히 앞쪽으로 구부린다. 15초에서 30초 동안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목의 근육을 천천히 늘린다.

2. 뒤로 젖히기 : 목을 뒤쪽으로 천천히 젖힌다. 15초에서 30초 동안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목의 근육을 천천히 늘려 나간다.

3. 목 돌리기 : 힘을 뺀 상태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목의 근육을 늘린다. 5회 반복한다.

4. 옆으로 젖히기 : 목을 한쪽으로 천천히 구부린다. 그 다음 다른 쪽으로 천천히 구부린다. 15초에서 30초 동안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목의 근육을 천천히 늘린다.



등근육 강화 운동

구부린 상태로 15초간 유지한다.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한다.

매일 2차례씩 왼쪽 운동을 하면 등의 근육과 뼈가 건강하고 유연해진다.



우아한 보병(寶瓶)

온 지구를 돌아온 소식
거대한 힘이 위세를 떨치고
마법의 영약으로
동방에서 모습을 드러내다

그 누가 말해 줄까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대가 없다 들었으나
최고의 값을 치르리

그것을 아는 이들이 말하건대,
깨어 있으라!
하늘이 온통 물들면
곧 올 것이로다

그것을 맛본 자, 황홀경에 빠져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보배로운 약병은 여성의 형상으로
금으로 제련된 솔로몬의 열쇠를 가져다 주니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전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함께 내려와
우리의 영혼을 영원의 품으로 이끄나니
꿈결에 젖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여인의 모습인 이 보병을 마시면

환희와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청하이 무상사께 바칩니다

2001년 12월 4일 코스타리카 마리 안 루빈스타인 몽테스 오카
(원문 스페인어)

그 효능은 이에 그치지 않아서
아무리 많은 이가 마셔도
결코 비는 법이 없으며
신묘한 향기는 마음을 저 높이 끌어올려
영혼은 어느새 영생에 이르네

빛나는 태양 처럼 눈부시지 않으나
그를 보면 눈이 멀어버릴 듯
마시면 넋을 잃듯 취하게 만들고
결코 잊지 못 할 달콤한 선율이
그 안에서 솟구쳐 흐르네

단 한 모금으로
신성한 자각이 되살아나니
이 묘약을 얻으면
사랑과 평화, 행복으로 충만하리

이어, 감히 한가득 들이킨다면
어찌될지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듣건대 이를 맛본 이는
그 여행에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하네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보니,
해독제는 존재하지도, 만들어진 바도 없으니
그를 통해 천국을 얻는 것이
그대의 유일한 갈망이라면,
그대의 돌아오는 여정은 장담할 수 없노라

이에 나는 기다리노라,
천국의 표식을 아는 이의 조언을.
영약을 맛보지도 못 한 채
이곳에 머물기는 원치 않나이다.
우아한 보병으로
동방에서 온 여인이시여!



사랑으로 풍요로웠던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전 세계 동수들의 스승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커졌다. 이에 동수들과 반입문 아이들이 스승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떨 듯이 기뻐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인기 있는 휴가 행선지인 플로리다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장애가 아무리 크고 길이 아무리 멀어도 스승님을 뵙고자 하는 수천 명의 동수들의 갈망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었다. 미국 및 캐나다의 많은 동수들이 엄청난 장거리 운전을 해서 왔으며, 수백 명의 포모사 동수들은 뉴욕 공항에 도착한 후 다시 24시간 동안 버스를 탄 끝에 플로리다 센터에 도착했다. 직행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많은 포모사 입문자들은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유럽을 경유해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탄 끝에 마침내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제자들의 신실함과 불굴의 의지에 감동하신 스승님은 당초의 생각을 바꿔 선이 끝난 후에도 며칠 더

센터에 머무르시며 제자들이 스승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그래서 많은 동수들에게 있어 이번 선은 풍성한 사랑의 결실을 얻은 선사였을 뿐 아니라, 영혼을 계속 고양시킬 수 있었던 선팔(禪八), 선구(禪九)이기도 했다.

선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열렸기 때문에 자비로운 스승님은 특별히 반입문을 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 어린 수행자들은 매일 한 시간씩 명상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했다. 자애로우신 스승님은 이 순수하고 활기 찬 작은 천사들을 친히 불러 만나 주시고 스승님 처소에 초대해 당신의 애완동물들과 놀도록 하시는 등 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셨다.

첫째 날의 계속되는 기쁨

선 준비가 한창이던 21일 오후, 다양한 작업팀 동

수들의 협력으로 플로리다 센터는 기쁨으로 넘치는 행사장으로 변모했다. 곳곳마다 유쾌한 축제 분위기가 흘러 넘쳐 초목들마저 이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정도였다.

12월 23일 새벽, 세계 도처에서 온 동수들은 센터의 안개에 덮인 호수를 지나 질서정연하게 명상 홀로 입장했다. 스승님을 뵙고 싶은 동수들의 열망은 선사가 시작되자마자 실현되었다. 스승님의 때이른 출현은 잠자리에 든 아이들을 보살피러 오신 어머니를 연상시키며 우리 마음을 한없이 따스롭게 만들었다. 스승님이 우리와 함께 오불을 외우시자 부드럽고 아름다운 스승님의 음성이 온 명상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아침에는 날씨가 화창하더니 오후에는 이슬비가 내렸다. 하지만 스승님이 나타나시자 우린 날씨를 잊어버렸다. 스승님은 대단히 우아한 복숭아 빛 의상을 입고 등장하셨는데 정말 산뜻하고 아름다우셨다. 센터가 밤에는 매우 추웠기 때문에 스승님은 텐트에서 자는 제자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염려하시며 편안하게 선을 개최할 수 있는 해변가의 따뜻하고 넉넉한 장소를 구입하길 기대하셨다.

스승님은 원래 이번 행사에 연락인만 초청해 그들의 동수들에 대한 평소의 봉사에 보답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소식이 새어 나가자 다른 많은 동수들 역시 스승님을 뵙고 싶어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되긴 했지만, 선 기간 내내 연락인들과 그 배우자들은 스승님의 특별 손님으로 스승님 곁에서 명상할 수 있도록 초대되었다. 선 첫째 날 저녁에는 스승님이 특별 저녁 만찬을 접대하시기도 하셨다.

저녁식사 중 스승님은 당신의 애완동물들과의 교감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 유쾌하고 유머스러운 이야기는 모두에게 동물의 영특함과 기민함에 대해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또한 모든 중생이 평등하며 모두의 내면에 불성이 있다는 말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뉴욕 재난 9.11 구조 작업에 투입된 동물들에 대한 기사를 보신 스승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스승님의 깊은 자비심과 예리한 통찰력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은 전문 구조 작업

자들이 완벽한 보호 장비를 갖춘 반면, 동물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팬발’로 깨진 유리 조각과 화학적으로 오염됐을 재해 현장의 잔해 속을 다니는 것을 보고는 정말 가슴 아팠다고 말씀하셨다. 구명견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데 반해 많은 인간들은 구명견들을 함부로 사랑 없이 대한다. 세상 사람들은 스승님의 이런 말씀을 참고 삼아 모든 신의 창조물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스승님은 또 슬픈 영화도 유익하고 교훈적이긴 하지만, 유쾌한 영화를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뉴스 잡지에 실린 추천 영화들에 관해서는, 단지 스승님이 보셨던 영화 중에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영화를 소개하려 하신 것이므로 영화를 고를 때 꼭 이에 따라 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상에 펼쳐진 천상의 크리스마스 축제

12월 24일 오후 명상 시간에 스승님은 연두색 평상복과 흰 바지를 입고 팔에 핑크색 물루칸 앵무새를 얻고 명상 홀로 들어오셨다.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이 앵무새를 볼 수 있고, 또 앵무새에게는 인간도 선량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동수들 사이를 이리저리 걸어다니셨다. 이 앵무새는 스승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한 듯이 보였다. 앵무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사랑해요!” “아름다운 새!”라고 말했다. 또 겁이 날 때는 머리를 스승님 팔에 묻곤 했는데 마치 낯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처럼 보였다.

선 기간 동안 동물 친구들에 대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스승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상함과 사랑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많은 동수들이 온화하고 순수한 품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저녁 우리는 호수 옆 아름다운 푸른 풀밭에서 풍성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한껏 즐겼다. 저녁 식사 후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되자 동수들은 명상홀로 모



여들었다. 무대는 동수들이 교환할 크리스마스 선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박수와 환호 속에 스승님은 특별 손님인 화려한 새, 개들과 함께 나타나셨다. 성인(聖人)과 천사, 인간, 천인(天人), 새(대표-앵무새) 그리고 육상 동물(대표-개) 모두가 축제에 참석했다. 재치있고 유머가 풍부한 스승님은 수상동물 대표를 지명하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다. 바로 대명상홀 옆 호수에 사는 악어였다! 정말 온 우주를 축복하고 많은 중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천상과 지상의 회합이었다.

명상 홀에 들어오신 스승님은 우선 아름다운 앵무새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거닐며 앵무새를 하나씩 소개시켜 주셨다. 이어서 두 명의 시자들이 크고 잘생긴 수형견 두 마리와 함께 한바퀴 뛰었는데, 동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날 저녁 공연 중 가장 멋지고 가장 독특한 공연이었는데, 특히 무대 앞에 앉아 있던 아이들은 즐거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어 다양한 공연을 준비한 동수들은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최고의 선 공연 중 하나로 만들었다. 스승님의 애완동물들은 공연을 매우 즐기는 듯 했으며, 때때로 새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격려사를 던지곤 했다. 공연자들에게 보여 주신 스승님의 미소와 사랑스런 눈길에 공연자들은 자신감과 영감이 솟아났다. 그 중 가장 고양된 공연 가운데 하나는 최신 음악과 춤으로 영적 수행을 해석한 청소년 동수들의 공연이었다. 그들의 영롱한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울려 퍼져 마치 한 사람이 노래하는 듯 했다! 저녁 내내 스승님은 공연들을 매우 즐겁게 감상하셨으며, 공연이 끝날 무렵 모든 공연자들을 칭찬하시고 멋지게 행사를 진행한 사회자들에게도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셨다.

동물과의 영적인 대화

12월 25일은 매우 춥고 흐렸다. 하지만 이틀 동안 부지런히 정진한 동수들은 점점 더 명상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명상 시간 내내 명상홀은 조용하기 그지없었다. 모두들 명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어 식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도 많은 동수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앉은 채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점심 시간 동안 스승님은 주방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오후 단체 명상 시간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명상 홀에 나타나셨는데, 매우 자연스럽고 여유로와 보이셨다. 스승님은 농담을 하신 후 동물들과 얘기할 수 있는 동수들을 무대로 불러 그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

그 중 독일에 살고 있는 한 중국

사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어릴 때 개고기를 먹는 동포인 광둥 사람들을 대신해 중

중 사과하면서, “비록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지만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개들에게 말하곤 했다. 어떤 개는 그녀가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며 채식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에게 달려와 키스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 잠수하는 동안 물고기들과 교감을 나눴던 환상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하루는 물 속에서 오물을 외우자 많은 물고기 떼가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스승님에 대해 말해 주는 한편 그들에게 어서 인간의 몸을 얻어 수행을 하라고 얘기했다. 이 물고기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며 “좋아!”라고 대



행복하기 그지없는
노년
시절을 보내

동물에 대한 스승님의 섬세한 보살핌은
동수들에게 깊은 감응을 주었다





지상과 천상의



Christmas



크리스마스 파티!





스승님과 함께 하는 1분 1초는
무한한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다



답하는 듯 보였다. 이 사저는 진실된 어조로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다른 많은 체형들을 동수들과 나누면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사저는 그렇지만 동물들과 말하는 건 매우 피곤한 일이기도 하다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 개와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자장을 개의 등급으로 낮추어야 애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스승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실 때 얼마나 피곤하실지 깨닫게 되었다! 이 사저는 동물들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스승님이 애완동물들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으며, 언젠가는 자신도 그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저녁에 스승님은 체육관에서 어울락 제자들과 만나신 후, 다시 포모사 제자들을 만나셨다. 곧 이어 그 외 모든 중국 제자들도 함께 부르셨다. 스승님은 포모사 동수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칭찬하셨다. 포모사 동수들의 신실함과 스승님을 뵈고자 했던 열망은 너무나도 확연했는데 오랜 이별 끝에 만난 스승과 제자의 해후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스승님과 얘기하고 싶은 제자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자 스승님은 12월 26일 새벽 명상 시간에 서양 동수들과 다른 아시아 각국 동수들을 따로 따로 만나주시며, 그들의 수행 질문에 답해 주셨다. 스승님은 한국 동수들에게 웃음을 짓고 더 자신감을 갖고 쾌활해질 것을 건의하시며, “한국인들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입니다! 한국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겁니다”라고 덧붙이셨다.

선 마지막 날의 회소식

선이 끝나기로 예정된 12월 26일, 스승님은 우리 생애 최고의 뉴스를 발표하셨다. 스승님께서 명상을 위해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는 흥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상을 통한 축복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모두들 스승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스승님은 과거에 발원하신 자비의 서원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깨달은 스승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미 알고 계셨던 스승님은 아주 오래 전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음법문을 전해 주기로 발원하셨던 것이다.

26일이 지난 며칠 동안에도 스승님은 플로리다 센터에 계속 머무시며 명상 홀과 숲 속 식사 구역을 자주 방문하시며 모든 이들과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셨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수들의 손이나 머리를 만져 주시며 남아 있던 동수들을 축복해 주셨다. 12월 29일까지도 수백 명의 제자들이

센터에 남아 있었으며 스승님은 그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눠 처소에서 만나셨다.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에 축복 받은 모두의 얼굴은 아름답게 빛났다. 스승님과 함께 있는 때 순간은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행복한 시간은 선에 참석했던 모든 동수들의 삶에 주옥과도 같은 아름다운 순간으로 새겨질 것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호앙 안 사형/ 미국 보스턴 (원문 어울락어)

2001년 12월 플로리다 센터의 크리스마스 행사 전, 나는 캘리포니아의 한 사저에게 그 행사에 갈 건지 물어봤다. 그러자 그 사저는 크리스마스 무렵이라 비행기표 값이 너무 비싸서 갈 수 없을 거라고 대답하면서, 나에게 플로리다에 가게 되면 스승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다. 나는 스승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게다가 많은 동수들 앞에서 스승님께 그런 말을 하기란 부끄러움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사저는 어떻게든 “그냥 스승님께 ‘사랑합니다’라고만 전해 주면 돼요” 하고 얘기했다.

2001년 12월 23일 스승님은 첫번째 말씀을 끝내신 후 단에서 내려와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몇 달 동안이나 스승님을 그리워했던 제자들의 갈망을 들어주셨다. 조금이라고 가까워서 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떠나시기 전 스승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키스를 날리며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불현듯 캘리포니아 사저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급히 두 손을 합장하며 속으로 말씀드렸다. “스승님, 캘리포니

아의 한 사저가 제게 ‘사랑합니다’라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삼가 당신께 이 말을 전합니다.” 그 후 스승님은 다니시다가 무대 오른쪽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그 때 나는 한참 떨어진 왼쪽 가장 뒷 편에 앉아 있었는데, 스승님이 갑자기 몸을 돌려 내가 있는 줄로 걸어오셨다. 나는 손을 뻗으며 스승님의 손에 닿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승님은 내 옆에 걸어오셔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휴지 한 장을 건네셨다. 나는 그 티슈를 손에 쥐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중에 저녁 식사 시간에 주방팀이 대중들에게 선보인 어울락 채식국수를 뜨고 있는데, 갑자기 호법이 식탁으로 바짝 붙으라고 했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스승님이 내 쪽으로 오시는 걸 보고 나는 즉시 “스승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버렸다. 그러자 스승님은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라며 답해 주셨다.

그 날 국수 맛이 천상의 요리처럼 정말 맛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일본어 통역+14개 국어 지원>

693 지혜와 집중
2000. 5. 7. 일본 도쿄 강연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프랑스어 자막>

491 악마의 장모
1995. 7. 15-16. 포모사 시후센터 단체명상

544 성스런 금빛 쥐
1996. 5. 11. 캄보디아 프놈펜 석가탄신일 국제선철 (1)

<영어+터키어 통역+인도네시아어 자막>

665A 마음의 평정
1999. 11. 20. 터키 이스탄불 강연



시

세상 모든 어린이들의
선생님들께 바칩니다

날마다 밤이 되면
내 옆에 앉아 말씀을 나눠 주세요
어머니는 제게 말씀 하셨죠,
제 생활을 당신께 얘기해달라고.
잠들기 전
당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장난꾸러기 엘프들과
노는 것도 지칠 때면
저는 항울한 나라로 찾아갑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요정들이 사는 곳
하얀 기에 푸른 드레스를 입고
마법의 날개를 펴덕이는 요정들
그 푸른 옷으로 제 눈물을 닦아 주고
꼭 안아 주며 제 마음을 달래지요
제 마음 속의 아이는
그들과 함께 노래하며 웃음 지으며
그들의 꿈과 믿음을 함께 나누지요

그들의 조막만한 손 안에
숨겨진 마법사는
황금 빵을 만들어 내며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나눠 줍니다

당신은 신의 왕국의 가장 위대한 마법사
저는 오늘 밤도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푸른 요정들을 그들의 베갯맡에 데려다 주세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그들의 차가운 입술에
밝은 웃음을 가져다 주세요
저처럼 웃으며 노래할 수 있도록,
요정들의 따뜻한 품에서
미소로 잠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랑의 요정들

코리나 갈레고스 젠티노 시저
칠레 산티아고 (원문 스페인어)

최고의 기도

청하이 무상사/ 1995. 5. 11.

컴보디아 프놈펜 국제선철 (원문 영어) 비디오 No. 545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 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신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언젠가, 우리 별이었는데 다른 별이었는데는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성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문제나 곤란한 일, 재난을 당하거나 나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신께 기도하거나 명상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면 성자는 아주 특별한 숲에 들어가 아주 특별한 장소에 앉아 정말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은 대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도움을 항상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자 역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들의 걱정거리는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성자는 죽었지만, 걱정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문제들이 날마다 생겨났지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문제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정말 우습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그들의 문제들을 성자의 후계자에게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후계자는 그다지 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로선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자신들

의 골칫거리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지 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예전 성자처럼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별한 곳에 앉아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역시 매우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은 제가 성자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흠, 이 사람은 최소한 아주 정직하군요. “그러나 그로 인해 결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 도와 주십시오.”

신은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군. 이 사람이 성스럽지는 않지만, 그건 마을 사람들과는 무관하잖아?’ 그래서 신은 기도를 들어 주며 예전처럼 사람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그다지 성스럽지 않은’ 사람을 찾아왔고, 그에게 신께 기도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이 사람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 세상에! 우리 걱정거리는 끝이 없는데 해결책이 없어지다니 사람들은 또 다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지요! 성스럽지도 않고 다른 스승의 후계자도 아니지만, 좀 특별한 사람, 이를테면 다른 사람보다 인정이나 기도를 열심히 할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모임에서 한 사람을 그냥 뽑곤 했습니다. “자, 이게 당신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기도해 보시



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전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숲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숲에 대해선 알았지만,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겠지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도 할 줄 몰랐으므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숲 가까이 가서 특별한 장소가 아닌 아무데나 앉았습니다. 이전의 두 기도자들은 매우 특별한 곳을 찾곤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곳이 매우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계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그는 매우 특별한 기도를 알고 있었으며, 스승이 기도하곤 했던 그 특별한 숲의 매우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신께 말했습니다. “오, 주여! 만일 당신이 특정한 방식에만 응답하신다면, 제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특정한 기도 방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도와 주세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집에 가서 자버렸습니다. 그래도 신은 기도를 들어 주었습니다. 달리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신은, ‘좋아, 도와주지’ 하고는 예전처럼 똑같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갑자기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그 특별한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 역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성 베드로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안 됐군요! 이 마을 사람들은 참 복도 없군요! 차례대로 사람들이 죽다니 …… 그래도 마을은 여전히 존재하고, 문제들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서 그들의 관습이 유지되었을 테니, 이제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습지요! 직접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누군가를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기대면 거기에 집착하곤 하지요. 설령 한 번밖에 통하지 않고 그 후로는 효과가 없어도 계속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곤란해졌습니다. 이러한 신성함에 속하거나 열심히 기도할 사람, 혹은 덕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었지요. 신과 접촉하는 법을 알지도 못하는 와중에 걱정거리는 계속 쌓여만 가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생각을 모은 끝에 그냥 아무나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업가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 고되게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럴 법도 합니다. 돈이라도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덕이 없어도 돈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성직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신과 접촉해 기도하는 일을 그에게 일임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가가 기도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가 아는 것이라곤 은행과 돈, 회계, 세금 등과 같은 것들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간청했기 때문에 그도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그는 신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도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앉아서, 이를테면 계산기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신이 이 모양입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어떤 골칫거리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지만, 사실 그건 모두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초래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다니, 정말 뭘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빌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무슨 신이 이런습니까? 그냥 당신 일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신은 당혹스러웠지만, 어쨌거나 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골



라 보세요. 나라면 어떤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신이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신은 때로 그렇게 하길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걸 들어 주기도 합니다. 처음의 성자의 경우에는 신이 매우 까다롭고 성스럽고 순결한 존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순수하고 성스러워야 하며, 신께 기도하려면 매우 특별하고 인적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면 신이 우리의 성스러움과 순수, 시간과 노력, 신에 대한 존경심 등에 감동을 받고 그 결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기대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스럽지 않았지만, 신이 그 자신의 성스러움 여부에는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울 것이며, 기도 또한 그의 성스러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도 그의 바램대로 들어 주었지요. 그 사람이 신께 원한 것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은 이 사람이 특별한 장소로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은 성스럽진 않았어도, 최소한 이전의 성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에 그 성자가 항상 매우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응답이 최소한 그 신성한 장소, 외진 숲속의 그 특별한 장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그런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집에서 기도했다면 기도는 효험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성스럽진 않지만, 최소한 그 특별한 장소를 통해 이전 성자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를 기다렸다가 축복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그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숲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다거나, 특별한 기도를 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께 기도를 했지요. “부디, 사람들을 도와 주세요.” 그가 진심에서 우러난 솔직하고 신실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신은 이 기도도 들어 주었습니다. 왜 안 들어 주겠어요? 달리 할 일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신이 그런 사소한 일도 돕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겸손했던 이 세 사람이 가버린 후, 마을에는 신성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누구에게

라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를 뽑았던 거지요. 사업가들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들의 돈과 사업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든 사업처럼 합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면 그냥 해라, 왜 사람들이 애걸복걸하도록 기다리냐”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때로 나는 “이렇게 해라, 하지만 안 해도 괜찮다.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겐 내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첫번째, 두번째, 세 번째 기도를 모방해 “좋아! 칭하이 스승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면서 이런 기도들이 괜찮다고 하셨어”라고 해선 안 됩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내 식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이 나와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기도가 다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신이나 스승의 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긴급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단지 언제,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 또는 스승의 힘이 상황에 따라 도울 것입니다. 단,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그 사업가보다 모자랄 것도 없는데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왜 이와 같은 매개자들에게 의존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집착, 습관,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신부나 승려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신부, 혹은 승려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전통에 따르면 대승불교의 승려들은 최소한 채식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오, 그래! 정말 성스러운 사람이다. 채식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다니, 정말 순수해.” 그것으로 사람들에게겐 최소한 한가지 구실이 생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순결하니까 그를 찾아가면 그를 통해 신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견고한 다리처럼요. 여기까진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파의 목사나 승려는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며, 매우 자유분방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하고, 여러분이 평소 먹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읽는 경전으로 기도하고 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신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런 승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다

지 크진 않습니다! 그들이 대단히 아름다운 사원에서 사는 반면, 여러분은 초라한 오두막에 산다는 정도입니다. 그들이 사는 사원이나 장소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일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겠습니까! 우리 행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습관들에 대한 믿음을 세세생생,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결코 그만두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 즉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안다면, 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줘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왜 그 모든 특별한 것을 혼자서만 간직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요. 특별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기준과 믿음, 신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혹은 신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로법어

청하이 무상사/ 1988. 8. 16. 포도사 이란 선철 (원문 중국어)

MP3 - 2

우리 수행자는 어떤 상황이든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자신을 잘 훈련시킨다면,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편안한 일만 찾아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것으로 수행 시간이 지체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언제라도 명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 수행할 시간을 희생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 수행할 시간을 내야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우리는 삼계를 넘을 수 있으며 팔만 사천 중생들의 윤회하는 바퀴에서 영원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은 돌고 또 돌아 백천만 겁이 지나야 인간으로 오게 됩니다. 때론 더 걸리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잠자고 먹고 마시고 노는 물질적이고 쓰레기 같은 온갖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꼬마 마틴 이야기

코리나 갈레고스 젠티노 사저
칠레 산티아고 (원문 스페인어)

어느 날 밤, 뒤뜰에서 계속 들리는 울음소리에 설핏 잠에서 깨어났다. 창 밖을 내다보니, 그 소리는 정원 한 구석에서 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놓인 책과 낡은 옷들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서 겹고 큰 고양이 한 마리와 여러 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걱정과 놀라움 속에서 나는 이 뜻밖의 '선물'을 어찌할 바 모른 채, 그저 고양이를 집에 데려가 물과 먹이를 줄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일단 새끼들이 젖을 떼면 다음에는 어미를 포함해 모두 남에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자, 어미는 무슨 까닭인지 새끼들을 낳았던 곳으로 한 마리씩 옮겨 놓았다. 그런데 어미의 건강증 탓인지 새끼 한 마리가 남게 되었다. 우리는 당혹스런 가운데 그 고양이를 손님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몰랐다. 스무 살인 딸 캐롤라이나는 새끼 고양이를 자기 자식인 양 여기며 '마틴'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처음 며칠 동안 우리는 먹이를 먹여 보려고 애쓰다가 그 후로는 캐롤라이나의 안약 병을 우유병으로 삼았다. 아들 레오나르도가 슬리퍼 상자를 마틴의 침대로 기꺼이 내주었지만, 마틴은 며칠 동안 계속 굶어대다가 결국에는 밖으로 나와 버렸다. 캐롤라이나는 마틴을 '아들'

이라고 불렀고, 마틴도 알아듣고 감사하듯 가르랑거렸다. 마틴은 캐롤라이나의 옷깃 주위까지 기어올라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때로 '어머니'가 마틴을 들어올려 다정하게 말을 걸면, 그는 작은 팔을 뻗어 그녀와 눈을 맞추며 기분 좋게 가르랑거렸다.

평소에 툭툭거리던 남편도 마틴에게는 잘 대해 주어 '마투시나'로부터 마틴을 보호해 주었다. 마투시나는 집에서 기르던 백갈색 고양이인데, 그는 새로운 고양이에게 제 자리를 빼앗겼다고 여기곤 마틴을 좋아하지 않았다. 18살의 아들

카를로스는 너그러운 편이 아닌데도, 마틴에게 먹이를 주곤 했고 자기 기타를 마틴의 안락한 요람으로 내주기도 했다.

3월 어느 토요일, 입문 후 처음으로 참석한 단체명상 중 눈을 떠서 스승님의 법상을 볼 때마다 마틴의 모습이 마음 속에 떠올랐다. 명상이 끝나자 서둘러 집에 도착해 보니, 마틴은 예전보다 조용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였다. 일요일, 나는 딸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딸은 나를 꼭 껴안고 마틴이 죽었다는 말을 전하며 울부짖었다. 꼭 껴안아준 내 뺨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마틴을 하얀 손수건에 싸서 관으로 쓸 차(茶) 상자에 넣었다. 딸아이에게 마틴을 떠올리게 할 만한 병이나 수저 같은 물건들을 치우다가 나도 모르게 마틴의 몸을 스승님의 사진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나는 둘째 아들에게 맨 처음 고양이를 발견했던 보리수나무 아래에 마틴을 묻으라고 시켰다. 오늘 마틴의 무덤 위에 깔린 낙엽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행복한 시간들이 생각났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정말 기상천외하고 예측 불허하다! 마틴은 20일 간의 짧은 생애 동안 우리 가족들의 가슴에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자비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우리에게 이 일은 진정한 삶에 대한 하나의 체험이었다. 고맙다, 마틴. 너는 우리 가슴에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

평칭 시저

영국 런던 (원문 영어)

지난 뉴스잡지 125호에는 중생들에 대한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글이 몇 편 실렸었다. 이런 스승님의 한없는 사랑의 모범을 접하면서 나는 깨달음이 단지 내면의 빛과 소리를 체험하는 것 그 이상이며, 그러한 체험만으로는 깨달음의 경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문 후 나는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해 내면의 체험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용히 명상하고 고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누가 나의 명상을 방해하기라도 하면, 특히 삼매에 들었을 때 방해를 받으면, 오랫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까지 했다. 내가 이렇게 명상에 집착해 있는 동안 외부 상황이 급격히 변해 나는 런던 소호에 있는 한 호스텔로 이사해 40명의 여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잠잘 때조차 라디오를 끼고 사는 여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녀는 유행가를 틀어 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라디오는 이어폰을 꽂을 자리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방안의 라디오 소리와 거리의 소음을 함께 ‘즐거야’만 했다. 음악 소리에도 춤추는 소리, 술꾼들의 고함소리가 이른 아침까지 들려왔다. 계속되는 방해로 명상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나는 매일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다. 이런 생활이 거의 10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 호스텔을 떠나고 나서, 나는 예전보다 명상을 잘 하진 못했는데도 수행이 진보한 것을 알고 놀라웠다. 진보의 이유는 내가 그 호스텔과 소호 지역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 즉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필요성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전에 중국에 살 때부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처음 영국에 와서도 남해안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흑인을 만날 기회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소호 지역에서는, 특히 그 호스텔에서는 여성 거주자 대부분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 한번은 흑인 여성과 방을 함께 쓰기도 했다 - 그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면서 그들로부터 배울 기회를 얻었고, 그들이 인정 많고 개방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인종차별 의식은 사라졌고, 나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신, 즉 빛과 소리라는 같은 근원에서 왔으며, 우리 모두는 신의 자녀인 것이다. 나는 곧 흑인 자매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나눴으며, 나는 그들이 고정적인 숙소를 마련하고 영국에서 합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길 매일 기도했다. 또 여력이 닿는 대로 물질적,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다.

또한 소호 지역에서 매일 집 없는 사람들과 마주했는데, 이건 내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이 내게 돈을 구걸하면, 나 역시 집도 없는 신세였지만 언제나 흔쾌히 도움을 주곤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전에 비하면 명상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영적인 고양감이 느껴졌다. 이전에는 마치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는 틀 안에 초점을 맞추듯이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만 사랑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다양한 국적과 인종, 사회계층의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 계까지 확장되었다.

우리는 동물, 식물, 벌레, 돌, 무형의 중생들에게까지 동등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신의 빛과 소리라는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대한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라. 우리의 행

동이 어떠했든 우리가 신의 손에 우리를 맡기기로 결심만 하면, 스승님은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우리의 업장을 씻어 주신다. 스승님은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우리 모두 사회에 기여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수행을 판단하는 올바른 방식일 것이다. 스승님의 다음 말

씀처럼 말이다. “머지않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환경에서 지도자가 되어 인류를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과 진정한 사랑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전 인류, 전 세계, 전 우주의 행복과 진보를 위해 온 삶을 바쳐야 합니다.”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 No. 240 -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중에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원동력

치에 천페이 사저/ 포모사 타오웬

1999년 남아공 국제 선행사가 열리는 동안, 나는 주방 팀에 참여했었다. 선이 끝난 후 나는 몇몇 동수들과 함께 주방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 더 남기로 자원했다. 정리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한 사형이 급히 와서는 스승님이 쓰시던 가구를 차에 싣는데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많은 사저들이 서로 돕겠다고 나서자 그 사형은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옮길 수 없을 거예요! 너무 큰 소파거든요.” 그러나 기대에 찬 우리들 표정을 보고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지 결국에는 승낙을 하고 말았다. 사저들은 들뜬 마음에 가구를 옮기려 달려갔다. 비록 큰 소파는 너무 커서 옮길 수 없었지만, 그보다 작은 소파들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나눌 수 있었고, 주변의 솔이나 꽃병도 들어 날랐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안달이었다.

그때는 정말 스승님의 축복이라든가 보상 같은 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스승님이 언제나 우

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스승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스승님이 육체적으로 더 많은 제자들을 돌보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이런 행동으로나마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남아공 선 기간 동안, 나는 주방 팀이었기 때문에 스승님의 강연이나 명상 시간에 매번 참여할 수 없었지만, 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스승님의 사랑을 한아름 안고 귀국할 수 있었다.

세속의 일을 할 때는 개인적인 이득을 따지지 않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 동수들 사이에선 종종 혼신을 다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속의 일과 장애로 괴로울 때마다 나는 스승님과 함께 보냈던 달콤한 시간들을 떠올린다. 그러다 보면 내 고민들은 차츰 사라져 버린다. 특히 남아공 선 행사에서 각자 한쪽 다리 밖에 들지 못했지만, 소파를 옮기던 영광을 회상하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힘이 충전되게 된다.





어린 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허 사저/ 일본 도쿄

2001년 11월 말, 일본 동수들은 도쿄 외곽의 지바현 가모가와에서 두 동수들이 준비한 멋진 선이(禪二) 행사에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선 행사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동수들이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노래를 배울 시간이 있었는데, 그 노래는 가락도 아름다운데다 가사도 감동적이었다. 모두들 즐거워하며 여러 번 연습을 했다. 나중에 관음사자와 다과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다섯 명의 동수들이 도착했다. 관음사자는 그 중 네 사람에게 다른 방에 들어가 명상하면서 친구의를 반성하라고 했지만, 그들을 태워온 한 동수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중에 우리는 그 동수가 오계를 어긴 상태에서 아내의 독려로 다른 동수 세 명과 함께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저는 남편이 걱정되어 이번 행사 동안 그 자신을 돌아보길 기대했던 것이다.

상황을 듣고 심각한 생각에 빠져들면서 우리는 순간 미소를 잃게 되었고 방안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관음사자는 갑자기 한 사저에게 다 함께 노래하도록 이끌라고 제안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연습했던 ‘어린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네’는 이 순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이었다.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가사를 한층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지난 모습들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나중

에 그 부부는 청정한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떠날 것을 결정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관음사자는 나머지 세 동수를 선 행사에 참여하도록 불렀다.

다시 한번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세 명의 동수들도 함께 합창을 했고, 긴장됐던 분위기도 점차 따뜻하고 조화롭게 변해갔다. 각자 새삼스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 속에서도, 겉으로도 미소가 흘러 나왔다. 왜냐하면 스승님의 지혜와 사랑이 당신의 한 훌륭한 도구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에 참여한 모든 동수들이 순수하고 신실하며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미소가 나왔다. 이 실생활에서의 체험을 통해 스승님은 사랑과 자비, 무아의 공부를 통해 대중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공부를 하게 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동시에 나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맡은 각자의 역할이 신의 절묘한 안배이며, 신의 위대한 지혜가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단지 무대에 선 배우로서 연극의 진행에 따라 눈물과 웃음, 고통과 즐거움을 겪는 것 뿐이다. 극이 끝날 때는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신의 위대한 사랑 속에 융합될 것이다. 



영국 런던 소식

노숙자들과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다

(원문 영어)



2001년 12월 5일 런던 센터의 입문자들은 시내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방한복을 나눠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방한 모자와 양말, 비스킷, 음료수를 도매로 구입해 100개의 쇼핑백에 나눠 담았다. 첫째 날 밤에는 런던 서부 지역에 약 50개의 꾸러미를 배포했다.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침낭과 속옷, 깨끗한 옷 등과 같이 적절한 물품들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우리의 관심에 대해 그저 고마워했다. 그 중 한 사람은 우리 단체와 수행에 대해 알게 되자 관음법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센터에 나오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면서 “새 양말을 신고 가겠다”고 사려 깊은 말을 덧붙였다.

동수들은 나중에 침낭과 방한복들을 사서 12월 19

일 런던의 다른 지역 노숙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작업 팀은 노숙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을 목표로 삼았는데,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지하철과 지하도의 구석진 곳에 모여 있었다.

12월 21일에는 약 30개의 침낭을 서부 런던의 노숙자 공동체에 음식을 제공하는 이동 급식소에 보냈다. 이 기구는 영국 자선 보호소에 의해 겨울 동안 운영되는데, 이곳에서도 노숙자들에게 침낭을 제공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낡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로 우리가 제공한 침낭은 마침 그 단체에서 필요한 물량과 정확히 일치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런던 동수들은 노숙자들을 위해 세워진 ‘주간 센터’를 방문해 보온 의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 주었다. 이 센터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씻고 쉴 자리를 제공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이 새겨진 선물이 각각에게 배당되었으며, 노숙자들은 명절 연휴 동안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희색이 역력했다.

노숙자들에 대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끝마치면서 런던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과 인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느꼈으며, 한편으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뻐했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캐나다 런던 소식

신의 사랑에 감동한 요양원 가족들

(원문 영어)

2001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한 지역 요양원의 일부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


식을 접하게 된 온타리오 런던의 입문자들은 그곳을 방문해 선물을 전

하기로 계획했다. 우리의 계획을 접한 요양원측 자원 봉사자는 큰 고마움을 표하며 그곳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을 보내왔다.

방문하는 날, 우리는 정기 단체명상을 끝내고 크리스



마스 캐롤을 몇 곡 연습한 후, 천사와 산타클로스, 사슴 등의 옷차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으로 향했다. 도착해서는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실린 전단지와 함께 선물을 나눠 주었다. 그들은 우리들과의 만남, 그리고 물질적인 영적인 선물에 매우 행복해 했으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합창을 하자 자신의 애창곡을 골라 우리와 함께 어울려 부르거나 즐겁게 경청했다.

전문 가수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요양원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신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요양원에 가득한 신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들, 특히 다소 불운한 사람들과 함께 신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스승님의 사랑이 겨울을 맞은 노숙자들을 포근히 감싸다

(원문 영어)


LA 센터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부근의 반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겨울 강수량이 극히 적은 탓에 초목들이 드문드문 살아남은 거친 산악지대에 둘러 쌓여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환경만큼이나 투박해 보인다. 수년 사이 노숙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LA 입문자들은 올해 추수 감사절 행사를 맞아 지역사회의 극빈층의 생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스웨터와 양말, 털모자, 속옷, 손가방 등을 선물로 준비했다. 첫날 밤, 온 거리와 음식점 주차장, 할인매장, 공원 등을 샅샅이 운전하며 노숙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 다녔다. 다행히 우리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공원을 두 곳 찾아낼 수 있었다. 노숙자들 대부분은 매우 사교적이어서 선물을 받도록 친구들을 데려왔다.

두 번째로 찾아 간 곳은 센터에서 약 20분 떨어진 큰 도시였는데, 60명 가량의 노숙자들이 부근 공원에 모

여 있었다. 우리가 도착해 공원 벤치에 무료 물품들을 진열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 서둘러 줄을 섰다. 그 중에는 두 명의 젊은 여성들이 추운 겨울밤에 얇은 면으로 된 잠옷만 입은 웅색한 차림의 아기를 각자 안고 있었다. 우리는 유아복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 아기 엄마들은 어린이 손수건으로 얼른 아기들을 씻긴 후, 우리가 준 특대 사이즈의 스웨터와 양말, 털모자 등을 입혔다. 공원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 아기들이 최소한 깨끗하고 따뜻한 겨울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지인 구세군 수용소를 찾아갔다. 이곳은 겨울 한철 동안 남자 노숙자들을 위해 야간에 문을 여는 곳으로, 시설은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하고 잘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는 건물 입구와 가까운 잔디에 옷을 걸었는데, 2시간 만에 옷이 모두 동이 났다. 또한 모두들 우리가 물품 속에 끼워 놓은 견본책자를 통해 이 선물이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높은 경지의 성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키워주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또한 다소 불행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도 하셨다. 이번 추수 감사절에 LA 센터 동수들도 바로 그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미국 오하이오 소식

가난한 이들에게 온정을

(원문 영어)

2001년 12월 30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오하이오 센터는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의 수용소를 찾아 230명이 넘는 노숙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용소는 동수들이 도착해 음식과 선물을 진열해 나눠 주기 시작하자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동수들은 사전에 밝은 색 선물 꾸러미와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양말 수 백 개 속에 새 양말과 따뜻한 스웨터, 사탕들을 준비해 왔다.

선물 외에도 우리는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크리스마스 명절 음식을 대접했다. 그 중 우리의 작년 방문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방문해 주길 기다렸으며 몹시 그리웠다고 말했다. 노숙자들이 이처럼 음식과 선물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린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느낌이었다. 또한 그들에

게 행복과 만족을 전해 준 것이 우리의 이 작은 선물이 아닌, 바로 스승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는 다소 시끄럽던 수용소가 떠날 즈음엔 조용하고 평화로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으며, 수용소 직원은 우리 작업 팀이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사랑과 온정으로 노숙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 단체라고 말했다.

스승님의 은총 덕분에 이번 사랑의 활동에 참가했던 우리 동수들은 이 세상의 끊임없는 고통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사랑과 자비심을 발전시킬 계기로 삼았다.



미국 오하이오 입문자들이 수용소의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선물을 전하다



코스타리카 소식

재소자와 함께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내다

(원문 스페인어)

2001년 12월 12일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수도 산호세에 위치한 산 세바스티앙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입문자들은 모두 빨간 크리스마스 모자를 쓰고, 그중 한 사제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어 분위기를 한층



산 세바스티앙 교도소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중인 재소자들

재소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있다





한 사제가 재소자를 안아준다


고조시켰다. 재소자들은 멋진 공연을 선보여 청중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행사장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었다. 재소자들은 스승님께 수

없이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행복에 취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연이 끝난 후 입문자들과 재소자들은 다 같이 풍성한 크리스마스 음식을 즐겼고, 재소자들 각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해졌다.

우리는 또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했는데, 시청이 끝나자 많은 재소자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교도소장이 한 달에 한 번 단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준 것이었다!

노숙자들을 위한 선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수들은 산호세 지역의 노숙자에 대한 스승님의 관심을 전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는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마분지 상자로 추위

를 피하는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뜨거운 커피, 옷과 이불을 나눠 주었다. 이 행사는 동수들과 노숙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 되었다. 




사랑의 연말연시



새해가 다가오자 타이난 센터의 동수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타이난 소재 교도소 3곳을 방문해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우선 12월 19일에는 타이난 구치소를 찾아 영성 세미나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행사장에 가득했으며, 전문적인 공연자나 연사가 아니었음에도 동수들의 훌륭한 공연은 재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스승님의 축복과 동수들의 신실함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활동이 끝난 후 교도소장은 우리와 우리 단체에 감사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했다.

12월 26일 우리는 밋더 개방교도소를 방문해 ‘삶을 계획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는 재소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신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방편법 전수 시간을 마련해 옥에 갇힌 이 형제자매들이 매일 짧은 시간이나마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 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865026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s. Tracey Ho	27-11-6402085 sajhbcntr@pchome.com.tw
★ 토고	팔리메 센터	228 410 948
	로메 센터	228 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 215551
★ 우간다	캠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kampalacntr@yahoo.com
★ 모리셔스	포르투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meloo.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yahoo.com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innermelody@vianw.com.ar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laserenacnt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henr@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DF	센터 52-55-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r@sinfir.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chinghailimaperu@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i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Armand Laplante	613-740-1017 er574@freenet.carleton.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66@shaw.ca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oceanoflove@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yahoo.com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j@arkansas.net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42 청하이 무상사 뉴스 잡지 130호



마카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macau_center@email.com		
카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홍콩	센터	852-27495534	★ 말레이시아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lovequanyin@hotmail.com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 인도					supreme2@tm.net.my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캘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trust_god@indiatimes.com			klsmch@tm.net.my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 인도네시아					klgcp@hotmail.com
발리	센터	62-361-231-040	페낭	센터	60-4-228-5853
		begodnow@yahoo.com			pgsmch@pd.jaring.my
	Mr. Agus Wibawa	62-81-855-8001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 몽고		
		smch-jkt@dnnet.net.id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Mr. Tai Eng Chew	62-21-6319061			zbadnaa@yahoo.com
	Ms. Lie Ik Chin	62-21-6510218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financel@ueii.com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 네팔		
		hai@cbn.net.id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Mr. I Ketut P.Swastika	62-21-7364470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73084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himsasb@indosat.net.id			ajaystha@hotmail.com
	Mr. Harry	62-31-594-5868			977-61-28455
		harry_1@sby.dnet.net.id	포카라	센터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마겔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977-61-21201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Mr. Bishun Neupane	neupanebishnu@hotmail.com
		yudi_wartono@telkom.net			977-61-28255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Shiva Bastola	pokharacenter@hotmail.com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977-61-31413
		ingtyas@eudoramail.com		Mr. Raj Jumar Lama	632-842-8828
★ 일본			★ 필리핀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manilach@hotmail.com
		truelove@mt.h.biglobe.ne.jp	★ 싱가포르	센터	65-674-7001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chinghai@singnet.com.sg
		genesis@mb.infobears.ne.jp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 스리랑카		
		cal13840@pop07.odn.ne.jp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jean@sol.lk
		y-plus@f6.dion.ne.jp	★ 태국		
★ 한국			방콕	센터	662-674-2694
	출판사	82-2-2202-8090			bkk_c@hotmail.com
		chinghai@unitel.co.kr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서울	서울 센터	82-2-5772158			edasnlad@samsorn.stou.ac.th
		quanyim@unitel.co.kr		Mr. Wu Peir Yuan	66-1-8248294
	유태인	82-2-7953927			66-53-217080
부산	이지자	82-2-599-1701	치앙마이	센터	Ms. Siriwan Supatrchamnian
	부산 센터	051-5819200			66-53-387126
		chinghaibusan@hanmail.net		하아이	66-74-368329-30(c/o 155)
	송호준	82-51-9574552		큰캔	센터
	황상원	82-51-8057283			66-43-261878
	이원석	82-51-8946645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전주	전주 센터	82-63-2747553			
		shc5824@hanmail.net			
	신현창	82-63-2545824	*** 유럽 ***		
인천	인천 센터	82-32-5795351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이재문	82-32-2441250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대구	대구 센터	82-53-7434450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chinghaidaegu@hanmail.net			sound@gmx.at
	김익현	82-53-6333346	★ 벨기에		
	한선희	82-53-7675338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차재현	82-53-8563849			universal@planetinternet.be
대전	대전 센터	82-42-6254801			
	김수동	82-42-2547309	★ 불가리아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조명대	82-62-3946552			oldruslan@yahoo.com
		enlightenment@hanmir.com	플로르디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안동	안동 센터	82-54-8213043			chinghaiplovdiv@mail.bg
	김삼태	82-54-8213043	★ 체코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houmril@kornet.net			prague-center@chinghai.cz
제주	제주 센터	82-64-996113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 마카오	센터	853-532231			zeljko@mindless.com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핀란드			오레	Ms. Viveka Widlund	hang.nguyen@spray.se 46-647-32097
헬싱키	Mis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widlund@hem.ufors.se
	hoanghanh,luong@luukku.com		말뫼	Mr. & Mrs. John Wu	46-40-973452
	Ms. Anne Nystrom	358-9-79390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anne.nystrom@surgeu.fi				mats.gigard@telia.com
★ 프랑스			오페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46-18-302029
파리	센터	33-1-4300-6282		premila-perera@pharmacog.uu.se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 스위스		
	ilancelot@celestialfamily.net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gefliu@yahoo.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Ms. Klein Ursula	41-22-3691550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 영국		
★ 독일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janet.weller@Zoom.co.uk
	berlincenter@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3742743
	Mr. ChristianBastwoeste	49-30-3470-9262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pnl@matters19.freemove.co.uk	
		49-174-5265242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ngoc-thao.nguyen@gmx.de		★ 스코틀랜드		
	dusseldorfcenter@hotmail.com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lillig@btinternet.com
민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글래스고	Mr. Robert Jackson	44-141-637-7255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Robert.jackson@classicfm.net
	ChingHai@aol.com				
★ 그리스			*** 오세아니아 ***		
아테네	Mr. Constantine Manos	30-61-278106	★ 호주		
	Razahidah@hotmail.com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 네덜란드					leonadelade@hotmail.com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thuong5@cs.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hotmail.com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mannaart@planet.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heaven.bud@mail.matav.hu				ctieng@telstra.com
	Mr. Lux Tamas	36-309-611994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Ms. Dora Seres	36-1379-1924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Mr. & Mrs. Ray Dixon	612-6685-3248
	clehel@freemail.hu				rayandjulie@linknet.com.au
★ 아일랜드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smcanbra@cyberone.com.au	613-9890-0320
	berardleech@unison.ie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 노르웨이					61-3-9307-6982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Mrs. Rosemary Nagtegaal	
	norwayqy@hotmail.com				
★ 폴란드			Mr. Pham Van Bon		613-9470-4573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091-4874953		Mr. Alan Khor	61-3-9857-4239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quanyin@home.pl				daveb@iinet.net.au
로드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Mr. Ly Van Tri	61-8-9244-7661
	czakra@interia.pl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 포르투갈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1-920-4118		Mr. Hong Bo	61-2-97887588
	lisbon_center@notmail.com				hongbo_huang@hotmail.com
★ 러시아			태즈메니아	Mr. Carly skinner	61-3-62282481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putters@bigpond.net.au
	boulgakov@tri-el.ru		★ 뉴질랜드		
★ 슬로베니아			오클랜드	Mr. Kym Anton Toia	649-419-4470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nzanton@yahoo.com
	dbk@siol.net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 스페인					takahide@extra.co.nz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rs. Chanwu Wong	649-5340986
	Ms. Lidia Kong	34-91-7756670	크라이스트처치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Mr. Michael Lin	643-3436918
발렌시아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chaomim@hotmail.com
		34-96-3336208	헤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647-858-3355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hamnzcont@yahoo.co.nz
	Mr. Yu Xi-Qi	34-96-3726401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valenciachinghai@yahoo.es				shale@ihug.co.nz
★ 스웨덴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예술을 통한 가르침

정리- 랑 귀라이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타이베이 센터 호법조는 매월 교리반을 열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12월에는 스승님의 예술작품을 주제로 삼았는데, 모두들 예술적인 정취가 감도는 가운데 스승님의 그림에 대한 감상과 느낌을 나눴다.

모임에 참석한 한 사저는 ‘범희충만’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때때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림에 나타난 어둡고 더러운 진흙이 이 세상을 뜻하며, 우리의 수행이 높아지면 그림의 이미지에 표현된 것처럼 범희충만된 영성의 꽃이 활짝 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스승님의 그림은 실로 오묘해서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내적 자아를 성찰하게 만들고 내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도 했다.

다른 사저는 스승님의 그림은 매우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반면, 간결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스승님의 작품 하나하나가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그림을 감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이 없어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저는 “스승님의 그림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양명산의 야경’이었는데, 그건 스승님의 생활 비디오 (No. 264)를 통해 그 그림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그림의 빛이 너무 강



범희충만



양명산의 야경

는 하나이기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수행 에너지를 모아 반드시 마음 속의 소망과 이상을 실현하고 또한 동시에 대중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렬해서 그녀는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일출의 광경인 줄 알았다고 한다! 다른 사저는 이 그림이 마치 많은 수행자들에게서 뿜어나오는 눈부신 빛으로 환해지는 어두운 도시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천상의 보석에 대해서 한 사저는, 이 보석들은 착용하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를 반영한다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 그녀 자신이 몹시 피곤할 때면 끼고 있던 반지도 어두워지고, 반면 단체명상을 참석한 후에는 본래의 광채를 되찾는다는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타이베이 센터의 호법조 동수들은 사형사저들끼리 수행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수행 진보를 격려할 수 있음에 매우 기뻐했다. 우리의 목표



무상 예술

시흥님의 최근 사진들

